

부산시간호사회 '함께 찾은 희망' 콘서트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제47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콘서트를 '함께 찾은 희망과의 동행' 주제로 5월 30일 개최했다.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 보컬그룹 '폰티컬로'와 밴드 '소란'이 초청돼 공연했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낭독하며 초심을 되새겼다. 이날 제2회 간호문화·간호사진 및 제5회 간호UCC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간호역사 사진과 부산시간호사회 간호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광주시간호사회 서서평 간호선교사 추모행사

광주시간호사회(회장 이숙자)는 서서평 간호선교사 추모행사를 5월 11일 개최했다.



서서평 간호선교사는 조선간호부회(대한간호협회 전신) 초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32세에 광주기독교병원 간호부장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54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가난하고 버림받고 병든 이들을 위한 간호와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했다. 고인은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내 선교사동산에 안장됐다.

광주시간호사회는 매년 서서평 간호선교사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숭고한 삶과 업적을 기리고,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고 있다.

이숙자 회장은 "배우는 삶을 살았던 서서평 간호선교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간호정신을 계승해나가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서울시간호사회 간호법 세미나 개최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간호법 세미나'를 5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세미나에서는 간호사 출신 오지은 변호사가 '진료과별 의료분쟁과 간호사의 역할: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분쟁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소송의 특수성, 각 진료과별 사건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간호업무가 보다 전문화되면서 간호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기록은 간호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회장은 "간호사 업무 관련 법적 보호 방안 등을 다루기 위해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간호법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세미나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 고찰' 주제로 9월 중순, 3차 세미나는 '관계 경향을 중심으로 본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주제로 12월 초 열릴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ijoo@



간호사 리프레시 데이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간호사들의 재충전을 위해 2018년도 제1차 리프레시 데이를 5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리프레시 데이는 가족 카드지갑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전문강사와 함께 직접 카드지갑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다.

간호사들은 "가족을 만지는 촉감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고, 내 손으로 직접 카드지갑을 완성해 보면서 성취감도 들었고 힐링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제주도간호사회 성신일출봉 자연정화 활동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송월숙)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성신일출봉을 걸으며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제주도간호사회 회원 및 가족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제주도간호사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기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화합을 도모했다.

송월숙 회장은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간호법 제정 및 마라톤과 마켓 노블평화화 추진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충남간호사회 '간호사 인권교육' 실시

충남간호사회(회장 임미림)는 회원역량강화교육으로 '간호사 인권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1차 교육은 1~3차 간호사 80명을 대상으로 4월 25일, 2차 교육은 4~10년차 이상 간호사 98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 열렸다.

'인권친화적인 직장문화 만들기: 성희롱·성폭력 예방 중심으로' '각종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회원들은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됐을 경우 구제 및 고충처리 절차

를 알게 돼 유익했다"고 말했다.

임미림 회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근절돼야 할 언어폭력, 성희롱 등의 사례와 대처방법을 알고,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대한남자간호사회, 간호대학생 진로 특강 개최

대한남자간호사회(회장 손인석)는 부산남자간호연합회와 함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군간호장교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간호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특강은 5월 11일 인제대에서, 두 번째 특강은 5월 21일 동명대에서 열렸다.

특강에서는 미군간호장교인 텍스터 윌리엄스(Dexter D. Williams)가 미군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진로탐색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배 남자간호사들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간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정신간호학회 '재난심리지원 간호사 역할' 학술대회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현명선)는 춘계학술대회를 '재난심리지원영역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주제로 5월 31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재난과 정신건강' '재난정신건강에서 정신간호의 발전방안 및 연구수주전략' '재난심리지원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재난상황에서의 생존자 및 유가족의 심리지원 체계' 등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이 구두로 발표됐다. 논문포스터 24권이 전시됐으며, 우수 논문포스터 3편을 시상했다.

현명선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의 재난심리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심리지원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한국간호교육학회 '뇌 기반학습' 학술대회

한국간호교육학회(회장 정명실)는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마음, 두뇌 그리고 간호교육: 뇌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주제로 5월 18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뇌 기반 학습의 원리와 간호교육에서의 뇌 기반 학습 전략 등에 대해 고찰했다. 뇌 기반학습은 인지, 정서, 심리운동 영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뇌의 작동원리에 기초한 전략들을 교육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뇌 기반학습의 이해' '뇌 기반학습의 교육적 시사' '간호교육에서 뇌 기반학습의 교수전략'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에 대한 생물

학적 고찰'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시뮬레이션 간호 교육에서의 촉진자 개념분석'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정명실 회장은 "간호교육의 미래성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학회에서는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한장에 담았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 시 20,000원 캐시백!

www.nurselife.or.kr ☎ 1566-3137

제주 서귀포시간호봉사단 행복한 급식봉사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서귀포시간호봉사단(단장 고인숙 동부보건의료)은 어르신 270여명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담긴 행복한 밥상을 차려드리는 급식봉사를 5월 16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급식봉사와 함께 동부보건의료에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에게 혈압·당뇨측정, 금연상담, 구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건강박수 등 건강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서귀포시간호봉사단은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의료, 서부보건의료 등 3개 보건소와 서귀포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관내 요양원을 월 2회 방문해 혈압·혈당 체크,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방문지원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간호봉사단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하반기에도 급식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박영순 보건진료소장 시집 '사랑받는 꽃'

박영순 해남보건진료소장(충남 정양군 정산면)이 첫 시집 '사랑받는 꽃'을 발간했다. 칠갑산의 맑은 심정으로 삶을 노래한 시 78편이 수록됐다. 시집은 1부 사랑받는 꽃, 2부 꽃말이하는 여자, 3부 칠갑산 마음, 4부 바람이 부는 날 푸른 편지를 쓰고 싶다 등으로 구성됐다.

박영순 소장은 "시를 쓴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였고, 시는 친구 같은 존재였다"면서 "칠갑산에 올라가 흠뻑 땀을 흘리고, 모퉁이 물가에 앉아 나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더없이 좋았다"고 회고했다.

특히 "청양 정산에 와 30여년간 주민들과 울고 웃고 했던 시간

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면서 "그동안 함께하며 시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배려가 되어 준 주민들과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희구 문학평론가는 "박영순 시인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꽃이고 싶었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싶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시적인 상상력이 깊고 두렵다"고 밝혔다.

박영순 소장은 2007년 '문예춘추' 신인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글벗문화회, 시인부락 문화회, 대전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호사신문이 주최하는 '간호문학상' 시 부문(2002년)에서 수상한 바 있다. <도서출판 채운재 / 1만원>

정규숙 기자 kschung@

각 화해별 다양한 주제 발표 진행. 우수 논문포스터 시상. 6월 15일까지 사전등록. 홈페이지(www.kchn.or.kr) 참조.

게시판

한국아동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 안영미)는 하계학술대회를 '국과수의 아이들 - 아동학대와 법의간호' 주제로 6월 22일 오전 9시30분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영아급사중 후근 사례와 법의학적 고찰' '아동학대와 법의학' '피해대 아동들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아동학대 관련 연구내용 분석' 등 주제강연. 우수 논문포스터 시상. 6월 15일까지 사전등록. 홈페이지(www.childnursing.or.kr) 참조.

노인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

노인간호학회(회장 홍(손)귀영)는 춘계국제학술대회 및 정립 20주년 행사를 '4차 산업혁명과 노인간호실무의 접목' 주제로 6월 29일 오전 8시30분 한양대 HIT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Novel Sensor Technology in Fall Risk Assessment and Fall Prevention for the Older People' 등 주제강연. 6월 22일까지 사전등록.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nursing.or.kr) 참조. 문의 02)2220-4711.

부모자녀간학학회 학술대회

부모자녀간학학회(회장 김 수)는 하계학술대회를 '여성암 자녀의 마음건강 돌보기' 주제로 6월 23일 오전 9시 연세대 간호대학 4층 창조관에서 개최한다. '어머니의 암을 경험하는 자녀의 스트레스' '여성암 자녀의 마음건강 돌보기' '여성암 자녀를 위한 동화책 개발' 등 주제강연. 6월 15일까지 사전 등록비 회원 3만원, 비회원 4만원, 학부생 1만원. 이메일(hjchina@inje.ac.kr, sya414@ansan.ac.kr)로 문의.

'나는 간호사를 선택했다' ... 박경애 삼성장원병원 수간호사

"간호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25년차 간호사가 치열한 병원생활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켜 온 이야기를 담은 책 '나는 간호사를 선택했다'가 발간됐다. 간호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몸소 배우며 알아가는 한 간호사의 에세이다.

저자인 박경애 삼성장원병원 응급실 수간호사는 책을 통해 응급실에서의 스펙터클한 경험을 공유한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만 힘든 것이 아님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일화들을 들려준다.

저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며 "꺼져지고 부서지면서 더듬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성장하듯이 삶 속에서 성장해가는 자기 자신을 만날 것을 강조한다.

주혜진 기자 hijoo@